

中國의 經濟發展과 儒商*

鄭 仁 在

I. 서 언

II. 중국의 현대화와 개혁 개방

III. 중국 경제발전과 동아시아의 管理 理論

IV. 義利並重 -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길

V. 儒商-知識人의 下海

VI. 결 론

I. 서 언

중국은 最近 세상을 떠난 (97. 2. 19) 덩소평의 개혁 개방을 실시한 (1978) 이래 근 20년간 눈부신 경제발전 (GNP. 10% 매년 증가)을 거듭 해 왔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는 동아연구소 김수용소장을 비롯하여 5명이 한 팀이 되어 중국의 沿海지구인 福建省 (福州, 泉州, 廈門, 武夷山)을 2월 18일부터 2월 27일 까지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해외지역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연구 대상 지역으로 삼아 실지로 探訪하였다.

중국의 수많은 省들 중에서 福建省을 택한 이유는

첫째: 중국의 경제 부흥의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華僑資本(홍콩, 대만의 자본)이 중국에 투입되었는데, 福建省은 대만과 가까운 항구(泉州, 廈門)가 있으며, 이들 지역은 대만과 똑 같은 閩南語를 사용하고 있어 대륙내 경제활동에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福建省은 閩學의 집대성자인 朱熹(1130-1200)가 탄생하여 활동하던 곳이어서, 武夷山에는 朱子學研究中心이 있어 주자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들의 저서(高令印著, 福建朱子學 등)가 출간된 곳이기도 하여 儒學(原始 儒學 및 朱子學)의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하여 현지 관련자들(敎授, 企業人, 公務員)과의 대화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유교 문화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쉽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필자는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유가 사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유학의 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商業)하는 '儒商'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儒商"이란 개념은 사전에도 없는 용어이다.¹⁾ 이것은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에서 유가적 인문주의 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을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儒商'이라는 낱말은 홍콩이나 대만에서 최근 몇 년(1994) 사이에 등장한 용어이며, 중국 T. V.에서 이 제목으로 성공한 부호들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한다. 작년(1996)에 浙江에서 출간된 『古今名商』

1) 漢語大詞典에서 '儒'의 항목을 찾아보면,

ㄱ. 術士. 周·秦 兩漢에서는 어떤 專門知識 技藝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ㄴ. 孔子가 창립한 학파. 儒家
 ㄷ. 儒學을 신봉하는 사람.
 ㄹ. 懦弱. ㄹ. 柔順이라 설명하였고, 儒士, 儒臣, 儒林, 儒官, 儒狹, 儒師, 儒將, 儒紳, 儒醫라는 용어는 나와 있으나 儒商이라는 말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라는 책에 “儒商의 독특한 풍모”라는 제목에서 홍콩 巨富인 李嘉誠을 소개하기도 하였다²⁾. 때마침 우리가 福建省에 도착한 날 석간 신문(福州晚報)에 (1997. 2. 18) ‘商을 위하여 하필 儒의 모자를 씌우는가’라는 제목 하에서 ‘儒商’의 개념을 간단히 논한 것이 눈에 띄었다³⁾. 이것을 보아 중국 대륙에서 ‘儒商’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福州師範大學 교수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儒商’에 대한 연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廈門大學 哲學科 교수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劉靑泉교수는 유교와 경제를 집중적으로 4차에 걸쳐 강의를 한 적이 있으며, 신학기에 5번째하고 있는데 역시 ‘儒商’이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儒商’에 대한 관심은 일본과 동아시아의 ‘네 마리 龍’이라 일컫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급속한 경제 성장 배경에는 그 정신적 문화적 요인이 작용을 했을 것이며, 특히 유교가 그 중심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서구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자극을 받은 일련의 중국학자들에 의하여 일기 시작한 것이다.

Max Weber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 발전이 목적 합리성의 추구하고 신교의 금욕적인 생활에서만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근 사회학자들이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본주의는 신교를 믿는 지역에서만 발전한 것이 아니

-
- 2) 馮界鑫 編著, 『古今名商 致富術』(浙江古籍出版社, 1996) p. 91, 文藝報(1993, 9, 18)에서는 ‘寺嘉誠傳’을 보도했는데, 그는 ‘儒商’의 독특한 풍모와 모범을 보여 주었다고 하였다. 미국의 『富比界』 잡지는 세계 10만 중국인 억만 富翁中 李嘉誠은 첫째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는 ‘儒商首富’, ‘儒商楷模’라고 칭찬되고 있다. p. 101. 최근 몇 년이래 저명한 儒商知名人士인 李嘉誠은 인민대회당등에서 매우 주목을 받았다. 海內外 많은 학자들이 李嘉誠의 경영 방법, 經商方略을 연구하고, 그의 仁義마음과 赤子の 情을 본떠서 공동으로 中國을 일으키고 있다.
- 3) 福州晚報, 1997, 2, 13 일자. “爲商何必冠儒”에서 『辭海』를 뒤져도 『辭源』을 조사해 ‘儒商’의 微言大意를 알아보려고 했으나, 단지 ‘奸商’, ‘小商’, ‘官商’, ‘巨商’, ‘外商’의 다섯 종류만 보일 뿐, 商家에 儒冠으로 封한 雅號는 없었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새로 생긴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라 유교를 신봉하던 지역에서도 흥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심지어 유교 자본주의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儒商'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余英時は『中國近世 宗教倫理와 商人精神』(1986년)에서 Weber의 중국 종교(儒敎와 道敎)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비판하는 동시에 그의 방법론을 받아들여 明清시대의 중국 상인의 유가적 초월 정신과 그들의 경제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에도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역설하였다⁴⁾. 여기서 '儒商'이라는 말은 없어도 유학자가 科擧공부를 그만두고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많은 예가 있었다. 이들이 賈道, 즉 '商人의 道'를 만들었으므로 그 용어(儒商)가 생길 가능성은 있었다고 하겠다.

成中英은『C이론- 易經管理哲學』(1995)을 출간하여 중국식 경영 이론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⁵⁾. 필자는 貴陽에서 열린 국제양명학대회(1996. 7. 19- 26)에서 저자와 만난 자리에서 1992년에 영문으로 쓴 'C Theory'를 읽었다고 했더니 대만에서 그것을 발전시킨 위의 저서를 출간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구입하여 읽은 적이 있었다. 우리가 福建師範大學에서 유교와 경제 발전의 관계에 관하여 좌담하였을 때(1997. 2. 19.) 필자가 余英時와 成中英의 저서를 언급하였다. 福建師大에서 易經을 강의한다는 젊은 교수가 자기도 成中英의 저서를 읽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였다. 중국 대륙에도 대만, 홍콩, 미국의 중국계 미국인 학자들이 쓴 글을 보고 그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들이 학교 강의 외에 기업에 諮問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유가의 정신이 현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儒商'이라는 용어는 지난 7월 국제 양명학 대회때 알게 되었다. 그때 참석한 홍콩의 法住書院 院長인 霍韜晦가 발행하는 '法燈'이라는

4) 余英時 著, 鄭仁在 譯, 『중국 근세 종교 윤리와 상인 정신』(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3)

5) 成中英, 『C理論-易經管理哲學』(台灣, 東大??出版, 1995)

소식지에 연속 강의 중 한 강좌가 ‘儒商’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貴陽에서 北京으로 가는 비행기가 3시간 연발되었다. 그때 동행하던 杜維明교수와 비행기장 대합실에서 필자는 中西文化와 哲學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이야기 할 기회가 생겼다. 필자는 중국 전통에는 家와 國사이에 集體를 이루는 공동체가 없어 修身, 齊家에서 治國으로 건너뛰어 서양과 같은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되지 못하였다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하였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는 혈연 공동체보다는 이익공동체가 주가 되는 시민사회의 산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杜교수는 서양의 역사는 시대마다 그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이들이 바뀌었는데, 고대 그리스는 ‘Philosopher’가, 중세에는 ‘Priest’가, 근대에는 계몽 사상가들이, 19세기에는 ‘Intelligencha’가 각각 그 시대를 이끌어 갔다. 이에 비하여 중국은 고대, 춘추전국시대부터 清末까지 ‘士’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중국 사회를 이끌어 갔다고 하였으며, 또 家와 國사이에 있는 ‘鄉’ 또는 ‘社’나 ‘會’ 등에서 ‘士’가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에서는 ‘士’로 대표되는 지식인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하였다. 현대에는 ‘士’로 분류되는 이들이 학계 이외에 각 계층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예컨대 官(行政, 司法)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유학적 소양을 가진 ‘士’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학의 정신으로) 기업을 하는 이들을 찾아내어 ‘儒商’이라 부르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 대륙에서는 덩소평의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서 종래의 계획 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국영 기업체나 外資企業體뿐만 아니라 私營기업체도 속출하여 지식인들이 부업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 직접 기업에 투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것을 ‘下海’라고 하는데 이들 문화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들이 기업에 투신하여 양심적으로 경영을 하며 이윤을 창출하는 이들을 일러

‘儒商’이라고 한다. 이들은 돈버는 데만 관심을 두는 ‘賤商’과 구별되며, 또 이익을 내기 위하여 부정한 수단 방법까지 동원하는 ‘奸商’과는 질적으로 판이한 것이다.

II. 중국의 현대화와 개혁 개방

‘儒商’이 형성되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륙은 덩소평의 개혁 개방에서 비롯한다. 1978년 12월 18일 中共中央은 ‘11屆 三中大會’를 소집하였는데, 여기서 덩소평의 개혁 개방의 시대를 연 것이다. 이 ‘11屆 三中大會’에서 이른바 ‘大鍋飯’을 깨트리고 ‘一大二公’을 거두어 들였다. 이로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중국 농업 개혁의 성공은 매우 뚜렷하여 10억인 국가 식량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덩소평의 개혁과 개방 양자는 서로 상보적으로 이루어지며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개방은 대외적인 개방뿐 아니라 사상의 해방도 포괄하였다. 개방을 대담하게 실험한 곳이 1980년대 深圳, 珠海, 汕頭 및 아모이(廈門)의 4個 경제특구로서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번 우리가 방문한 곳이 바로 福建省 廈門이며, 여기서 廈門대학 교수들과 경제발전과 유교의 상관관계를 토론하였다. 여기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가 모두 18개인데 그중 바우전자 공장을 견학하고 사장과의 한 시간 동안 질문과 대답을 통해 현지 실태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

1980년대 당시 덩소평이 경제특구를 만들려 했을 때, 당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陳雲은 이를 반대했다고 한다⁶⁾. 그러나 덩소평이 반대파들

6) 陳雲은 中央工作會議(1980년 12월 16일)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외국 자본가 또한 자본가이다. ... 내가 다시 한번 외국 자본가에 대하여 환영하는 가운데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까닭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간부들이 이 일에 대하여 여전히 매우 天真하기 때문이다. ... 경제 법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계획 경제를 주체로 삼는 것이다. 그러

의 걱정을 잠재운 것은 경제특구의 姓이 ‘社’이지 ‘資’가 아니라는 분명한 취지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의 발상인 것이었으며, 계획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시장 기능만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등소평은 4개 경제특구에 이어 沿海 14개 도시 및 海南道를 개방하여 더욱 시장경제 체제를 활성화하였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외국과의 무역은 엄청난 숫자로 증가하였다. 70년대의 22억달러에서 93년에는 2000억달러까지 비약하여 세계 10대 무역국이 되었다⁷⁾.

개혁 개방의 對內的 특징중 하나는 私營工商企業을 개방하는 것이다. 처음(1978-82)에는 소상점, 음식점, 의류 판매점, 도매상 서비스센터 등이 個體戶로서 합법화되었다. 1983년 이후 私營企業, 中外合資企業, 鄉鎮企業, 등이 신속하게 발전하여 개체 경제와 사영 경제가 일상 소비품 시장에서 그 주류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 개방은 소련처럼 연방의 해체를 가져오지 않고, 사회주의를 건지하면서도 시장경제를 결합시킨 데서 그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1984년 중국 공산당 12屆 三中全會에서 사회주의는 계획을 가진 商品經濟理論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1992년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개혁의 목표와 방식은 사회주의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립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중국의 개혁은 바로 이 두 대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한 걸음씩 성공의 길로 나아간 것이다.

므로 여러 방면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 내에 국가가 간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陳雲, 『計劃經濟市場問題』, 『十一屆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讀』, 人民出版社, 1978년 5월 제 1판. 寒山碧 著, 『略論 鄧小平經濟思想的發展』, p. 117-141. 『從中西文化探索中國之出路』(香港, 東西文化公司, 1996년 11월)에서 再引用. 번역은 필자.

7) 同上, p. 123-124

이제 중국경제체제 개혁의 기본적인 생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의 근본 원인은 상품 경제 이론의 두 가지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상품 경제 이론은 자연경제로부터 상품 경제로 가는 궤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개혁도 반드시 이러한 추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상품 경제발전은 3단계 이론을 거치는데,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중엽까지 資本原始 누적과 자본 생산 관계의 탄생 단계인데, 이 단계의 주요한 사명은 機制轉輾을 완성하는데 있다.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중엽까지 資源依託型 상품 경제 발전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시장과 식민지를 쟁취하는데 있다. 다음은 20세기 중엽에서 21세기 중엽까지 인력 자원 의탁형 상품 경제 발전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높은 기술을 쟁취하는데 있으며 이시기를 技術專攻시대라고도 한다. 매 단계마다 그 특징이 있으나 결코 기타 요소를 배척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궤도 수정(機制轉輾)을 기초로 하여 시장 육성을 발전 방향으로 삼고 과학기술 성과를 생산력으로 전환시키는 三重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公有制와 商品경제가 서로 통하여 모순이 없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는 바로 공유화된 상품 경제이며, 사회주의는 產權관계가 분명한 공유제의 경제 형태라는 것이다⁸⁾. 둘째, 시장경제 이론은 중국경제개혁이 軌道修正(機制轉輾)과 시장 육성을 동시에 중시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립한다는 것은 시장調節을 기초로 하는 資源配置의 機制체제이다. 그것은 3가지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재산권(產權)이 분명하고, 독립적으로 決策을 진행할 수 있고, 아울러 완전히 경제적 책임을 지는 기업. 둘째, 기업은 자유로 진입할 권리를 가지고, 피차가 평등하게 자유경쟁을 하여 정확한 가격 참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 셋째, 정부의 거시적 총량 관리와 행정지도, 즉 기업, 시장과 정부의 조

8) 陳榮耀, 『強國夢-儒家文化與現代商品文明』(云南人民出版社, 1994년 1월), pp. 260-265 참조.

절, 이에 따라 상품 경제 발전의 이중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미시적인 활동력과 거시적 협조의 통일이다.

중국경제체제 개혁은 위의 두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세 가지 기본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은 농촌에서 시작하여 도시로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도 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농촌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의 주요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농민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농촌 개혁은 전체 사회 개혁의 '이익 기반'을 확고하게 만든 데 있는 것이다.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 추구에 대한 '源發利益'을 인정해야 된다. 이러한 '이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의 뜻을 함유하고 있다. 첫째, 그것은 사회 재원의 원천임을 나타낸다. 사회의 특정한 생산 방식은 노동자 자신의 이익 추구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비로소 그들은 노동 생산에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또는 '주인'을 위하여 잉여노동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그것은 사회의 재부 증식의 원천임을 나타낸다. 노동자의 물질적 이익을 충분히 긍정해야만 생산자의 적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의 경제 발전과 재부의 누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셋째 개인 이익은 개인과 사회를 결합시키는 기초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가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인식하고 그들이 가치를 실현토록 도와주어야 노동자 개인은 비로소 사회와 고도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으며, 양자의 이익을 진정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

농촌 개혁의 성공은 노동자 자신의 이익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아울러 그것을 사회 이익, 집체이익의 기반으로 삼아, 노동자 개인 이익이 사회 이익의 '源發' 이익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각종 사회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농촌 개혁의 기초 위에서 도시와 공업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도시 개혁은 농촌 개혁과는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다. 양자는 생산력 수준이 같지 않고, 생산 사회화 정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농촌 개혁은 국부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심지어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도시 개혁은 생산의 사회화 정도가 높기 때문에 整體性과 사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部門과 部門간의 관계가 긴밀하다. 농촌의 개혁은 농민들 스스로 경영하게 하여 생산 효과를 내는 어느 정도 자유방임이 허용되지만, 도시의 개혁은 그렇게 할 수 없고 整體의 협조와 균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시의 개혁은 그러므로 농촌보다 어렵다. 농촌 개혁의 기본 특징이 방임이라면, 도시 개혁은 정책 조정과 거시적 組合을 요하는 것이다. 도시 개혁은 그러므로 전면적으로 실시 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⁹⁾. 여기서 경제특구의 건립과 부분적 영역의 개혁 방안이 실시된 것이다.

상품 경제는 본질상 일종의 시장경제이고, 시장경제를 육성시키는 가장 효과 있는 길은 과학기술을 생산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기술을 생산력으로 전환시키는데는 기업가와 그 경영 방법이 매우 필요한데 이것은 서구적인 것보다 그것을 소화하여 아시아적 방법으로 적용한 일본, 대만 등의 것이 더 적절한 것이었다.

III. 중국 경제발전과 동아시아의 管理 理論

대륙의 경제발전의 모델은 태국, 홍콩, Singapore 등 중국인의 기업 경영 방식이었으며, 대륙인들은 일본의 경제발전과 四小龍을 경제 성장 배경에는 제도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유가적인 문화적 요인이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저술도 적지 않게 출간되고 있다.

9) 同上

李書有는 『유학과 동아시아 공업 문명』에서 “2차대전 후 일본 경제가 신속하게 발전하여 한 패권국에서 일약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를 넘어 미국에 버금가는 제 2 경제대국이 되었고, 태국,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60년대 이래 경제가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하여 1988년 서방 7개국 수뇌회의에서 발표한 선언 중 이러한 국가와 지구를 ‘新興工業經濟體’라고 일컬었다. … 일본과 아주 ‘小條龍’은 東亞地區에 있으면서 역사상 모두 유학의 영향을 받아 유교 문화권에 속한다. 따라서 유학과 동아시아 현대 공업 문명의 관계는 세인이 주목하는 ‘熱點’이 되었다고¹⁰⁾ 하여 유학과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陳榮耀도 『儒家資本主義와 商品文明』에서 “2차대전 후 세계 경제발전 구조중 가장 주목을 끈 것은 日本과 東亞四小龍 경제의 우뚝 일어난다. 이 지구는 유가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가 자본주의라고 일컫는다”¹¹⁾고 하여 李書有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가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본과 동아시아 공업 문명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陳榮耀는 유가 자본주의 경제의 비약적 발전은 유가 문화가 현대 경제 발전에 촉진적 작용을 하였으며 그 작용의 구체적인 표현은 국가권력의 올바른 간여가 효과 있게 이 지역 경제의 현대화를 촉진시켰으며, 和를 귀하게 여기는 원칙은 최대한도로 안으로는 협조하고 밖으로는 경쟁하는 효과를 보증하였고, 인력 자원 투자에 대한 고도의 중시는 인력 자원 의탁형의 경제발전을 순조롭게 진행시켰으며, 사회적 和諧와 가정 관계의 융합은 경제발전의 강력한 動力이 되었다고 하면서 위에서 열거한 이러한 특징들이 모두 儒家文化의 특징에 속한다는 것이다¹²⁾.

그런데 유가 문화의 발원지인 중국 대륙에서는 어째서 이와 유사한 경제적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陳榮耀는 개방적 상품 경제와 폐쇄적 통제경제를 대비하면

10) 李書有, 『儒學與社會文明』(江蘇教育出版社, 1995년 10월), p. 361

11) 陳榮耀, 주8과 同. p. 180

12) 陳榮耀, 『追求和諧-東方管理探微』(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5년 6월), p. 200

서 전자는 경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위주로 한데 대하여 후자는 정치가 중심이 되어 권력 機制가 사회경제 위에 엄격하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대륙은 과거 후자의 길을 택하여 절대적 평등을 강조하는 극좌의 사회주의 노선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낙후를 가져왔는데 이제 덩소핑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상품 경제, 시장경제 체제가 중국의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개혁개방과 더불어 유가 문화는 대륙에서도 日本이나 四小龍이 했던 것과 똑같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대륙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품경제 발전의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 져야만 비로소 유가 문화의 정수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³⁾. 그렇지 않을 경우 농업 경제 즉 자연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유가 문화는 제자리에 머물러 더 이상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유가 문화는 새로운 외적인 충격과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科學文化의 注入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유가 문화는 현대화 되어 그 역할을 다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가 문화는 인도에서 들어온 佛家文化의 충격과 자극으로 새롭게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것이 新儒家(朱子學과 陽明學)였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볼 때 이러한 서양 科學文化의 수용은 현시대의 새로운 요구이며 이를 통하여 新儒家와 다른 改新 儒家 즉 代新儒家가 출현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1,2세대)新儒家들이 관심을 둔 것은 科學과 民主를 儒學과 연관시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3세대 현대 신유가들 예컨대 杜維明, 成中英, 余英時 같은 인물들은 과학 뿐 아니라 資本主義와 儒學의 정신을 연관시켜 유학을 현대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과제의 하나가 된 것이다. 이들의 자극과 영향으로 중국 대륙에서도 학자들이 경제발전과 유가 문화의 정신을 한데 융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당국도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정신문명의 건설을 목표로 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13) 同上.

대륙 학자들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당국에서 제시한 사회주의 정신 문명의 건설을 위하여 앞서간 나라들의 경제발전의 궤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日本과 四小龍의 경제발전의 경험을 모델로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륙 학자들은 유가 문화가 동아시아 현대화 공업 문명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하였다. 서양 과학기술과 문화의 도입이 없었다면 현대 정치·법률제도와 교육제도의 건립이 없었을 것이며, 서양 현대 공업 문명의 충격으로 인한 동아시아 민족의 각성이 없었더라면 동아시아 현대 공업 문명이 출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¹⁴⁾.

유가 문화는 서양의 科學문화와 商品문화와의 빈번한 접촉과 왕래를 통하여 서로간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게 되었다. 유가 문화는 내재적인 理性的 요소를 현대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현대 정신문명의 지주를 형성하였으며 점차로 서구와 다른 독특한 경영 방식을 형성하여 현대 경제발전을 촉진하였다는 것이다¹⁵⁾.

成中英도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東西洋 두 가지 관리 사상 체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때 그 지표는 일본과 동아 네마리 용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중국철학문화배경을 가진 국가와 地區가 경제상에서 거대한 성공을 하여 서양 관리 학계로 하여금 연원이 長久한 東方管理의 道에 대하여 부득불 눈을 다시 뜨고 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 현대화는 결코 반드시 서양이 발전한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대 관리의 이론 실천중에서 옛날의 東方 管理의 道가 여전히 매몰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¹⁶⁾고 하여 동양식 경영 방식이 동아시아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면 서구와 다른 독특한 경영 방식은 무엇인가? 陳來는 “유가 문화가 현대 시장경제에 일관되게 파고 들어와 서양의 기업 문화와 서로

14) 李書有, 주10과 同, p. 393.

15) 주12와 同, p. 147.

16) 成中英, 주5와 同, p. 3.

다른 정신 기질을 갖게 하였는데, 그것은 管理人이 비교적으로 人間관계의 調整을 중시하고, 종업원은 비교적 群體의 이익을 중시하여 일종의 人情味가 있는 企業情神을 갖게 하였다”¹⁷⁾고 하였다.

‘인정미가 있는 기업 정신’은 유가 문화가 서구적 기업 관리를 중국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식 기업 관리를 체계화한 成中英은 서양의 X: Y이론과 日本의 Z이론을 자기의 체계 속에 융해시켜 C이론을 제시하여 주목받고 있다. 그는 自序에서 “이 새로운 管理學의 길, 이 새로운 管理 哲學을 나는 ‘C이론’ 이라고 命名한다. 이른바 ‘C’는 중국(China)의 易經(change)의 창조성(creativity)를 가리킨다. 그것은 이 새로운 관리 철학이 중국의 역사경험을 배경으로 삼고, 중국 철학 사상을 기초로 삼아 현대 관리 문화에 대하여 思考하고 回答한 것이다”¹⁸⁾라면서 ‘C’이론의 철학적 기초가 유가 철학의 고전 중 하나인 『易經』의 창조성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成中英에 의하면 『易經』철학이 ‘C이론’의 철학적 기초이며, 『역경』철학은 커다란 開放性, 포용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 東西古今 일체의 가치가 있는 관리 사상과 철학 사상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서양의 관리는 이성적 권위, 과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으나 人性의 靈活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각도에서 들어가 社會和諧力이 뚜렷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日本의 管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조는 주목하였으나 개인의 活力과 창조성을 지나치게 억압하여 마찬가지로 靈活性과 포용성이 결핍되었다는 것이다. 『역경』철학은 ‘一陰一陽之謂道’를 주장하였는데, 이것에 근거하여 서양의 理性管理를 ‘陽’으로 삼고 일본의 人性管理를 ‘陰’으로 삼아 양자를 서로 결합하여 整體性, 즉 ‘道’의 기초 위에서 全面的인 管理를 파악케 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⁹⁾. 즉 그는 그의 ‘C이론’을 가지고 北京(1991.4), 濟南

17) 陳來, 『儒家倫理與中國現代化』, 『中國人的觀念與行爲』(天津人民出版社, 1995) p. 120.

18) 成中英, 주5와 同. p. 3.

19) 同上. p. 4.

(1992.5), 廣州(1993.3), 上海(1994.4) 등지에서 강연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위하여 개혁 개방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 대륙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는 廣州 강연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개혁 개방은 경험이 없는, 그리고 자본주의를 그다지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중국의 경험과 경제발전에 알맞은 이론이 요구되는데 C이론은 바로 그 철학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계획 경제는 平等과 사회 정의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差異를 무시하였는데, 시장경제에서는 후자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公有制는 平等·正義를, 사유 제는 自由창조이다. 平等은 정적이며 자유는 동적이다. 움직이는 곳에 비로소 活力이 있다. 動靜의道는 바로 陰陽이다. 正義와 창조, 평등과 자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公과 私가 결합하여야 한다. 중국은 公을 起點으로 하고 결과는 私를 향해 발전하는데 어떻게 平衡을 유지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중국은 公을 근본(本)으로 하고 私를 작용(用)으로 삼아 헌법이 공유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私를 근본으로 하고 公을 작용(用)으로 삼는다. 公과 私의 결합은 바로 平等과 自由의 결합이며 사회 자본주의 또는 자본 사회주의라고 일컬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C이론은 공유제와 충돌되지 않는다고 하였다²⁰⁾

成中英의 'C이론'은 중국 대륙의 경제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많은 대륙의 학자들도 동아시아 특유의 管理이론에 관심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였다. 陳榮耀에 의하면 東方文明과 商品文明의 결합은 東亞管理文明의 기초를 건립하였다는 것이다. 東方은 반드시 西方의 유효한 管理사상과 이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흡수는 X이론, Y이론, 超Y이론과 서양 현대 관리 이론에 대한 흡수이다. 동시에 일본식 Z이론 역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흡수는 미래의 추세라는 것이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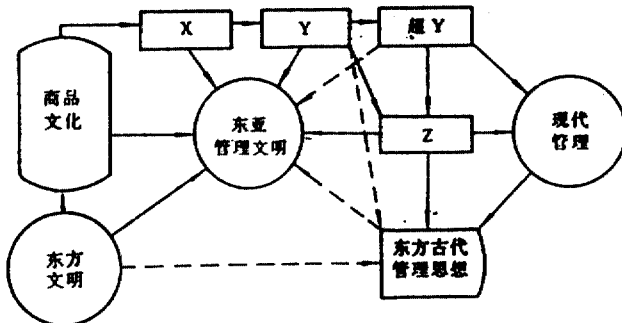
20) 同上, p. 332.

는 서양의 과학적 管理文化의 기초를 5가지 원칙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는데, 그것은 1)精確原則, 2)分析原則, 3)論理原則, 4)現實原則, 5)實驗原則이다. 첫째, 서양 관리 방식의 정확성은 동양사유의 애매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둘째, 분석적 능력은 관리 대상을 수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양사유의 定性的 사유를 지양할 수 있고, 셋째, 논리적 사고는 관리 과정을 因果관계로 형성케하여 논리적 체계를 갖도록 하였고, 넷째, 모든 관리를 규범화·제도화하여 전통적 관리의 隨意性, 즉 관리책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실제로 실험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데 서양 관리이론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人治’ 방식에서 ‘法治’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중요한 준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흡수만이 중국의 현대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東亞文明, 특히 儒敎文化의 기초 위에서 과학 문화와 상품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東亞 특유의 관리 이론과 사상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도표를 통하여 그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²¹⁾.

IV. 義利並重-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길

중국의 개혁 개방은 결코 서양의 자본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21) 陳榮耀 주)12와 同



아니라 사회주의 公有制를 바탕으로 하여 자본주의 私有制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는 公有화된 市場經濟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이며, 재산권(產權)관계가 명백한 公有制의 경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은 정부의 거시적인 조절과 기업의 자유로운 창조에 입각한 경쟁이라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수용하려는 것이다. 公有制와 私有制는 公私관계로 표현되기도 하고, 義利관계의 문제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개인의 경제활동, 즉 사적인 이윤의 추구가 사회적인 도덕 규범과 서로 배치되는가? 또는 합치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유가의 ‘義利問題’는 그러므로 개혁 개방이 실시된 이래 아주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한 사회 심리학자는 현대 중국 국민의 가치관을 조사하는 설문지에서 “시장경제는 중국인의 ‘重義輕利’의 전통적 ‘美德’을 모두 버릴 것인가?”라는 항목에 대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 자중 여기에 동의하거나 비교적 동의한다는 사람이 31%를 차지하였고, 동의하지 않거나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48.2%가 되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시장경제와 전통적 ‘重義輕利’ 관념을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며, 또한 사람들의 義利觀이 어느 정도의 변화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답 결과 중에서 15.1%의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발전이 義利問題상에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인식이 애매 모호해졌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었다²²⁾

22) 吳增基

표7-17 調查對象對某些 現点的看法

序号	現点	同意		比較同意		贊不准		不太同意		不同意		未回答		合計	
		人數	%	人數	%	人數	%	人數	%	人數	%	人數	%	人數	%
1	市場經濟將 中國人“重 義輕利”的 傳統美德都 丟掉了	212	22.0	87	9.0	146	15.1	185	19.2	280	29.0	57	5.7	965	100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로 가면서 개인의 이윤 추구 문제가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전통적인 義利觀을 재조명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또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義利문제에 대하여는 세 가지 주요 관점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는 ‘重義輕利’ 사상이다. 이것은 도덕적 가치를 물질적 이익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양자를 모순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는 ‘義利並重’ 사상이다. 이것은 도덕적 가치와 물질적 욕구 및 이익을 함께 중시하고, 양자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는 ‘見利忘義’의 태도이다. 이것은 물질적 이익을 위하여 도덕적 가치를 내버리는 태도이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다 세 번째 견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동시에 경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 대륙에서 의리 문제에 대한 토론이 많이 있었는데, 청화대학의 錢遜교수는 1989년 「儒家, 義利, 理欲之辨 및 현대 의식」이라는 논문에서 의리, 이윤관계에 대한 유가의 기본 태도는 중의정리, 公利爲上이었으며 이것은 시종일관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회답은 사회발전과 의식의 깊이에 따라 부단히 발전되었다고 전제하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 조건하에서 총체적으로 말해 계급 이익의 대항은 이미 소멸되었다. 사회의 공리와 개인의 사리는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대 유가에서, 존비를 나누고, 귀천을 분명히 하며, 노동자의 개인의 이익을 억압했던 의를 철저히 내던지고²³⁾, 사회 이익과 개인 이익, 공과 사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회주의 정채 이익과 개인 이익 관계의 요구에 부합되는 도덕 원칙을

23) 錢遜, 「儒家, 義利, 理欲之辨及其現代意識」, 『儒家思想與未來社會』(上海, 人民出版社, 1989), pp. 49-57.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5가지 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첫째: 남에게 손해 주지 않으면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유지하는 동시에 남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자가 제시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勿施於人)는 명제는 모두 구체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드러낸 것이다.

둘째: 개인과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며 개인의 사리를 위하여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 집체, 개인 셋의 이익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의는 3자 이익의 통일을 체현해야 한다.

넷째: 의를 보면 용감히 행한다. 사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리를 따지지 않고 과감히 행한다.

다섯째: 조국의 부강,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심 없이 봉사한다.

이와 같은 의리 관계의 문제는 중국전통사상중 중요한 문제였고 현재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에도 중요한 문제라고²⁴⁾ 하였다. 그의 견해는 첫째 번을 제외하고 모두 개인이 집체(사회, 국가)에 헌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重義輕利’적 경향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1995)에 출간된 『유학연구와 현대화』에서도 의리문제가 시장경제발전 문제와 연관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鍾小鈺은 「공자의리관 및 그 현대 의식」에서, 重義輕利가 아닌 義利並重으로 유가 사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논지를 펼쳐 나갔다. 과거의 중의경리의 의리관은 개인이 집체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여 공업 문명의 생산과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시장경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창조성과 능동성이며 공리를 그 원동력으로 하는데 유가의 중의경리적 의리관은 의와 리를 대립적인 모순으로 파악하여 개인의 사리를 집체의 공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

24) 同上. p. 58

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러한 도의론이 결코 공자 의리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²⁵⁾이다. 공자는 인간의 자연적 욕망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긍정하고 이것은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귀는 인간이 바라는 것이고 가난과 천함은 싫어하는 것이다”²⁶⁾는 명제를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좌전의 “공자는 의를 실천하였다. 의를 실천함으로써 리를 생기게 하였다”²⁷⁾는 말을 인용하면서 공자는 ‘의’와 ‘리’를 아울러 중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공자의 의리 사상은 의와 리를 엄격히 나누어서 보는 도의론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으며, 그가 말하는 충서론과 오히려 연관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²⁸⁾. 공자의 주요사상이 ‘인’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충서인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어떤 목적에 도달하고 싶으면 남도 도달케 하여 준다”²⁹⁾는 충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³⁰⁾는 서를 통하여 인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공자는 仁學의 기초위에서 자기의 내재적 정신인격을 충실케하여 도덕적 자아를 건립하는 기준(의)를 긍정하였을 뿐 아니라 물질적 욕구를 통해 자신의 자연생명을 유지하는 이익(利)도 함께 긍정하였다. 그는 도의를 중시하는 동시에 물욕도 중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공자의 충서를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비판하는 도의론은 Kant적인 법칙주의와 비슷한 일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도의론적 ‘중의경리’는 지나치게 도덕원칙만을 강조한 나머지 물질적 이익을 도외시 할 우려가 있는데 비하여 공리주의적 義利並重은 현

25) 鍾小鈺, 『孔子義利觀及其現代意識』, 『儒學研究與現代化』(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5년 10월), pp. 139-148.

26) 富與貴 是人之所以欲也. 貧與賤, 人之所惡也. 『論語, 里仁』

27) 孔子行義, 義以生利. 『左傳, 成公二年』條

28) 注25와 同

29)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論語, 雍也』

30) 己所不欲, 勿施於人. 『論語, 衛靈公』

실적인 이익에 바탕을 두고, 도덕원칙이 세워져 있다는 점에서 개혁개방 정책에 보다 알맞는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 평균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에서 억압되었던 개인들의 이윤 추구는 도시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고, 또 그 중에는 무분별한 이익의 추구현상이 생겨 경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이익추구의 정당성을 상실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등소평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정신문명의 건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대 중국학자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이익추구와 不正腐敗를 일러 “見利忘義”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리관은 공자의 기본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도 해롭다³¹⁾고 하였다.

의리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厦州대학의 高令印교수는 우리가 방문 대답하였을 때 시간이 촉박하여 발언할 기회가 많지 않았으나, 다행히 그가 쓴 글속에서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의리문제를 인간의 본성과 연관시켜 논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자연속성과 사회속성 두 방면을 다 포괄하고 있는데, 순자는 전자를 ‘性’이라 하고 후자를 ‘偽’라고 하였다. 인간의 사회활동 중에서 인성중 자연본능의 속성이 악으로 튀어나와 대부분이 사적으로 나가 남을 손상시키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로 음식, 성, 옷, 거주, 행동 등 물질적 요구이다. 그리고 그 사회의식성이 선으로 표현되어 대부분이 공적으로 나가 자신을 누르고 남을 이롭게 하는데, 주로 理想, 名譽, 地位, 宗教, 教育, 藝術 등 정신적 요구이다. 인류사회의 문명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포괄하고 있다. 인류역사는 인성중의 “리를 밝히는”(喻於利) 악성이 어느정도 사회경제의 번영과 정치적 진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利己心’으로 사회경제를 발전시킬

31) 李培祁, 『儒家的道德規範與市場經濟的發展』, 『儒家研究與現代化』, p. 156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²⁾.

현재 중국대륙은 ‘일부분 사람을 먼저 부하게 하자’고 하여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放任하여 이익을 쟁취토록 하여 그들의 총명한 재능을 발휘함으로 인하여 새로 일어난 기술과 공업이 신속하게 발달하였다. 중국대륙도 이제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공업사회로 진입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高 교수는 현재 세계는 인류로 하여금 대지산천에서 해양, 하늘로부터 찾아내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물질적 재부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인류는 물질자원의 고갈, 環境汚染, 生態破壞, 武器殺人, 性開放으로 인한 에이즈의 만연 등 이 문제로 등장하였다. 공업화에 따라서 생긴 인류정신 문화의 곤혹과 난제는 서양의 공업국가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高 교수는 단언하였다. 그 이유는 서양의 문화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통이 없고 그들이 사용하는 유일한 길은 ‘법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유가사상은 법치밖에 또한 덕치가 있기 때문에 해결가능한 길이 있다는 것이다. 서양문화는 ‘知性’에 치중하는데 비해 중국문화의 心靈은 ‘德性’에 중심을 둔다³³⁾는 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해 서양은 도구적 이성이 발전한데 대하여 중국은 도덕적 이성을 개발시켰다는 말이 된다. 高令印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근대 서양은 민주, 자유를 주장하여 개인이익을 사회와 서로 대립시켜, 개인주의가 횡행하도록 하였다. 서양사회는 개인을 중심으로 삼는다. 東方社會는 사회(家族)를 중심으로 삼는다. 유가는 공자가 인을 사랑으로 해석하고, 韓愈가 博愛로 해석한데서부터 주자는 ‘마음의 덕, 사랑의 원리(心之德, 愛之理)’라는 것으로 仁을 정의하였다. 이것은 모두 仁자를 두쪽, 즉 오른쪽은 사회, 왼쪽은 개인이 되게 한 것이다. 인의 도덕이 體現된 개인과 사회를 처리한 사상과 방법은 바로 中庸의 道였

32) 高令印, 「仁義道德與21世紀」, 『東亞文化的探索』(臺灣, 正中書局, 1986년 11월), pp. 199-209.

33) 同上, p. 210

다”³⁴⁾.

高교수는 개인의 이익(利)과 사회의 도덕(義)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증용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것은 중국식 경영, 중국식 관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V. 儒商-知識人의 下海

計劃經濟에서 市場經濟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하에서 義利문제가 격렬하게 논의되었고, 義利並重이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가치문명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이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³⁵⁾는 공자의 말은 사회지도층(士大夫)에 속하는 군자는 자기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사회전체적인 정의(義)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물질적 욕구에만 만족하는 피통치자계통에 속하는 소인은 자신의 이익을 찾는데 밝다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四民, 즉 士農工商중에서 농업이 本業에 속하고 工商은 末業에 속하므로 군자계층에 속하는 지식인(士)들은 대토지를 소유한 농민계층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벼슬길로 나아가 관리가 되거나 교육을 담당하였고, 말업으로 간주된 공상에 발을 들여 놓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획경제에서는 봉건시대와는 다르다고 해도, 현대적 벼슬 즉 공산당 간부가 되어 백성을 지도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벼슬을 선호하는 것은 지식인들의 행위가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지배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는 義利가 並重되는 상황에서, 지식인들이 工商에 뛰어드는 것은 경제적 논리에 의하여 지

34) 同上, p. 217

35)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論語. 里仁』

배되기 때문이다. 이익추구는 소인이 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관념이 완전히 불식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義) 이윤추구는 바로 현대적 군자, 지식인이 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념이 싹트게 된 것이다. 여기서 義에 밝았던 전통의 儒者는 리도 함께 밝은 현대의 '儒商'으로 등장하여 사회지도층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 儒商의 출현을 張彦의 논리에 따라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의 공업문명은 자본주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공상의 역할은 공전의 유례없이 중시되었다. 중국대륙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의 건립은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이익을 도모하고 취하는 행위방식과 자아가치를 실현하는 기제에 질적인 변호를 가져왔다. 그것은 지식도 역시 商品이므로 시장에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다는 의식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지적 재산권은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사회현상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은 고도의 창조성을 갖는 노동이므로 과학기술과 경제활동의 결합은 지적재산권의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보호에서 가장 주목을 끈다는 것이다³⁶⁾.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의 직업이 학술 또는 정치에서 經商으로 분화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지식주체의 가치관념이 일원적 구조에서 이원적 구조로 향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과학 지식인의 사회역할의 전환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직업분화와 業餘兼職은 지식인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겸직은 과학기술자들이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기술개발, 자문, 생산품설계 및 교학등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 겸직현상은 농촌의 鄉鎮企業, 작은 도시의 중소기업의 발전에 따라서 출현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결렬한 시장경쟁에 직면하여 과학기술의 힘이 매우 부족하므로 과기인의 도움이 극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겸직은 모두 '규범경제'의 범주에 속하므로 불법적 수단으로 수입을 얻는 지하경제

36) 張彦, 『市場經濟與中國科技知識分子』(河南人民出版社, 1995년 12월), pp. 75-86

와는 결코 같지 않다. 지식인들 중에는 위험을 무릎쓰고 기업에서 하던 일(諮問, 設計 등)을 본업으로 삼아서 전적으로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사례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것을 “下海”라고 한다. 과학 기술의 지식인들이 下海한다는 것은 40년대 ‘公家人’의 어떤 우월감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몇천년간 “군자는利的을 말하지 않는다”(君子不言利)는 전통관념을 깨트리는 것이다³⁷⁾.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지식인이 下海를 한 뒤에는 더이상 지식인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상업에 성공하려면,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규범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商海중에서 패배하고 말것이기 때문이며, 또 실제로 경영에 성공하며 현실중에 존재하는 精神的 墮落을 너그럽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는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商人들의 利害관계와 결탁되었을 때 생기는 현상들인 것이다. 지식인의 下海는 일종의 역할의 전환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역할의 전환이 결코 가치규범과 조작법칙의 근본적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市場경제는 결코 돈을 벌기위해 남을 해치고 속여도 좋은 경제가 아니라 法制經濟이다. 사실상 믿음과 명예(信譽), 책임감, 상호이익등 상업도덕이 市場機制를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보증인 것이다. 과학기술의 지식인이 ‘下海’한다는 것은 바로 과학기술을 거대한 생산력으로 전환시켜 경제적 효익을 창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義와 利는 완전히 아주 훌륭하게 결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儒商’의 출현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法制經濟이며 부족한 것은 바로 이 ‘儒商’³⁸⁾들이라는 것이다.

張彥은 市場機制가 효과적으로 사회의 경제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

37) pp. 125-136.

38) 同上. p. 144

다면, 그것은 또한 文化번영까지 촉진시킬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의 가치는 문화적 가치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경제도 일종의 문화이며 또한 인류가 창조한 우수한 문화라는 것이다. 張彦은 후자의 입장에서 현대시장은 적극적 경제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 사회기능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속에서 시장의 가치와 문화의 가치는 통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경제체제의 각도에서 중국이 건설하려고 하는 시장경제는 자유방임의 일반적인 의미의 시장이 아니라, 현대 시장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3대 계통이 세발 달린 숫처럼 서 있는 것이며,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서로 작용하여 더욱 빛이나도록 한다는 것이다.³⁹⁾

張彦은 科學技術 企業家를 소개하면서, 이른바 과학기술의 기업은 기술을 핵심으로 삼고, 科技인원이 主體가 되어 사회에 기술商品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다. 科技企業家는 원래 과학연구와 설계 그리고 敎職에 종사하는 기술자, 교수, 강사 등이 사직하고나서 과학기술 기업에 진입하거나 기업을 창시하는 지도적 계층을 말한다. 20세기 90년대 중국이 시장경제에 진입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과기실업가들이 출현하기를 기대하는데 深圳의 海王集團의 총재 張思民은 바로 이런 기대에 부응하여 출현한 우수한 科技實業家 이며⁴⁰⁾ 機敏한 '儒商'이라는 것이다.

VI. 결 론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에 따라서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39) 同上 p. 161

40) 同上. p. 210

거대한 중화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다가올 21세기는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우리가 방문한 福建省의 福州, 泉州, 廈門 등지의 정부기관과 기업체를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石獅子市의 한 의류업체의 사장(董事長)이 臺灣사람이었고, 그는 儒家的 정신으로 企業을 경영한다고 말한적이 있다. 台灣과 中共은 政治적으로는 敵對상태에 있으나 經濟적으로는 서로 협력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 우리의 남북관계도 이렇게 풀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였다.

등소평이 처음 개방을 실험한 4개 특구중 하나인 廈門에서 외관상으로 나타난 발전에 놀라움을 금치못하였다. 이제 개방의 범위는 그들의 체제개혁과 함께 그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한국 전자회사의 사장은 그 속도에 실감했는지 중국이 이러한 속도로 성장하면 10년안에 우리를 능가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중국은 자본주의체제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시장경제체제를 사회주의에 도입하여 중국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무리없이 운용하여 성공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公有制라 한다면, 시장체제는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私有制를 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자가 平等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自由를 중시한다. 2차대전 후 세계는 전자를 표방하는 공산주의와 후자를 대표하는 자유주의(자본주의)가 대립하여 냉정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東歐와 소련의 몰락으로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나는 듯 하였다. 그런데 중국은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兩者를 종합하여 사회주의 시장체제를 잘 운용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서구의 사고방식과 다른 중국 특유의 心性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구가 인간의 知性을 중시한다면 중국은 인간됨의 德性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자는 논리를 매우 중시하여 科學, 技術, 文化를 발전시켰는데 후자는 仁義와 中庸을 생활화하여

적용력이 강한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서구의 논리는 矛盾律에 입각하며 A 아니면 B, 자유 아니면 평등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선택을 강요한다면, 중국의 사유는 A와 B, 자유와 평등 양자를 다 수용하는 ‘相即’의 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儒家는 中和를 바탕으로 諸子百家的 사상을 종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道家가 다양성을 나타내는 異의 철학이라면, 墨家나 法家は 上同을 강조하는 同의 철학이었다. 그런데 儒家는 相即한 同과 異를 조절(中)하여 화합(和)하는 中和의 철학이었다. 周易과 中庸은 바로 中和哲學의 경전이며, 成中英의 관리철학인 C 이론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문제는 바로 義와 利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개방전 계획경제에서는 개인의 利益추구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오직 사회주의 이념(義)을 실천하는 것이 임무였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를 바탕으로 이윤추구가 허용되므로 공동체의 이념(義)과 개인의 이익(利)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논의되었는데, 그것은 과거 ‘重義輕利’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義利並重’의 태도를 갖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見利思義’의 태도는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에 장애가 된다고 매우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의 말씀대로 富貴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므로 이에 부응하여 중국정부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하여 ‘向前徒’를 외치고 있는데 이것을 ‘向錢徒’로 잘못 읽고 있는 부류들이 생기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 공자는 정당한 방법(道)으로 富貴를 얻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자기 소유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신을 잘 실천하는 儒者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유자도 있었다. 筍子は 후자와 같은 俗儒와 구별하여 君子儒가 되라고 하였던 것이다.

현대사회는 지식인(士, 儒)의 分化로 인하여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科技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지식인(儒)들이 ‘下海’하여 企業

을 경영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공자의 정신에 따라 道에 근거하여 기업을 경영하여 財富을 획득한 사람들을 일러 ‘儒商’이라 한 것이다. 이들은 현대적인 ‘君子儒’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君子儒는 權力에 편승하여 돈을 번 御用儒와도 질적으로 다르고, 傳統社會習俗에만 관심을 가지고 현대화문제를 외면한 封建儒와도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앞으로의 중국사회는 君子儒의 정신을 가진 ‘儒商’이 거대한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41) 杜念中, 楊君實 編, 『儒家倫理 與 經濟發展』 (臺北, 允晨文化, 1989), p. 66.